<포교사단 14주년 기념법회>

치　　사

포교사단 출범 14주년과 포교사의 날 제정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종단의 포교사 제도는 침체된 포교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1982년 중요한 종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발전을 거듭하고 스스로 역할을 확대해 가면서, 2000년에는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7개 지역단으로 구성된 포교사단을 출범하고 종단의 튼실한 포교 이정표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10개의 지역단과 미주에 1개, 그리고 제주에 직할팀을 두면서 중추적 포교조직으로 발전하였고, 5천여의 포교사들이 성심성의로 종지와 종통을 받들며 정진하고 있습니다. 종단을 외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홍포하기 위하여 전국의 각 분야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범은 불자들에게 깊은 신심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시고 부다가야에서 녹야원까지 7일동안 280킬로를 걸어 옛 수행동료였던 다섯 비구를 찾아가 사성제의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 최초의 설법인 초전법륜(初轉法輪)이야말로 중생을 구원하고 사바세계를 향해 내딛은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고행을 포기한 부처님을 외면한 다섯 비구들이었지만, 무엇보다 그들을 먼저 제도하겠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부처님은 가장 위대한 포교사였습니다.

친애하는 포교사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앞에 전통문화를 훼손하

고 종교평화를 위협하는 안타까운 일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여 민족문화를 수호하고 자성과 쇄신의 정신으로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라는 5대 분야의 실천을 적극 추진하여 3년여 동안 여러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포교활동의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러한 결실을 맺기 위하여 포교사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구와 사찰 그리고 스님과 신도가 함께 주인이 되어 정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결사의 내용을 지역과 계층별 특성에 맞게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마련해 '붓다로 살아가자'는 저마다의 발원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포교사는 우리 종단, 나아가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스님과 신도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불자들의 구심점이 되어 희망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불법을 널리 전파하여 이 사바세계가 정법으로 바로 서고 성실하고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포교사단 출범 14주년과 포교사의 날 제정을 축하하며 포교사단의 향기로운 기운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년 3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합장